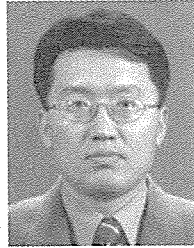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머리말

한·미 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식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사실 두 나라는 이미 2004년 11월 양국 통상 장관간의 합의에 따라 2005년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FTA 협정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초 양국간 FTA 협상이 지난해 말 APEC(2005년 11월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선언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한·미 양국간의 FTA 협상 개시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임 정 빈
경성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대외무역의존도 등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계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인도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및 사료비용 등 농업생산여건의 어려움 속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품목에 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농업부문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한국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은 지난 UR 농산물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런데 WTO체제를 통한 다

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더 큰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동시다발적 FTA 협정의 추진과 그것도 미국이라는 농업대국과의 FTA 추진은 향후 한국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미국간의 FTA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품목별 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미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 효과와 대응방향

가.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교역액은 111억 1천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교역액은 28억 1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교역액의 25%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교역액 중 10%가량이 대미 수출이며 나머지 90%는 대미 수입부문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인 수입구조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국 전체 무역수지는 141억 달러의 흑자이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3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가 전체 무역수지와는 달리 대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3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중요한 해외시장의 하나로 자국 농업생산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곡물, 축산 및 낙농품, 과일류 등의 주요 판매처이다.

한·미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대

미 농축산물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품목이 없는 소량 다품종 형태로 금액측면에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일관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은 곡물류, 축산물과 그 가공품, 낙농유제품, 과일류, 견과류 등 대량구매 내지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2004년 기준으로 약 2억 57백만 달러로써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은 2004년 기준으로 약 25억 달러로써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이후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및 식품의 유사성 등을 강점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도 약 44%수준에서 2004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한편 대미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면류와 과자류 등 가공품으로서 농축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실제 이바지 할 수

있는 과일류, 채소류, 인삼류, 견과류, 화훼류 등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금액면에서 10%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미 주요 농림축산물 상위 수출품목으로는 로얄제리(42백만달러), 라면(41백만 달러), 필터담배(36백만 달러), 배(15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대미 수출 농림축산물 주로 소량 다품종 형태로 수출되어 금액면에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수출실적도 연도별로 매우 불안정하다. 반면에 대미 농축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옥수수, 콩, 밀 등 곡물류,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축산물과 낙농유제품, 오렌지와 포도 등 과일류로서 농축산물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782백만 달러), 대두(374백만 달러), 밀(274백만 달러), 오렌지(142백만 달러), 쇠고기(103백만 달러), 로얄제리(91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나. 농축산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농축산물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 같은 교역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충족상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입이 불가피한

표 1. 우리나라의 대 미국 농축산물 교역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전체	1,424	1,391	1,277	1,370	1,473	1,683	1,921
	대 미국 (%)	101 (7.1)	106 (7.6)	134 (10.5)	160 (11.7)	203 (13.8)	214 (12.7)	275 (14.3)
수입	전체	8,152	5,420	6,783	6,792	7,650	8,328	9,200
	대 미국 (%)	3,565 (43.7)	1,968 (36.3)	2,239 (33.0)	2,187 (32.2)	2,292 (30.0)	2,556 (30.7)	2,534 (27.5)
무역수지	전체	△6,728	△4,029	△5,506	△5,422	△6,177	△6,645	△7,279
	대 미국	△3,464	△1,862	△2,105	△2,027	△2,089	△2,342	△2,259

주 : 1. 임산물 제외 농산물과 축산물의 합계 실적임

2. ()의 수치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에는 무역창출 및 전환 효과로 인하여 우리가 자급하고 있는 쌀, 식용콩 등의 기초식량을 포함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인 오렌지, 포도 등 과실류, 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 유제품 및 이들의 가공/조제품 등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농축산업 부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 국수, 과자, 담배 등 가공품위주이며, 일부 재미교포와 아시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일,

인삼, 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향후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분야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품,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를 전망하

표 2. 우리나라의 대 미국 주요 20개 수출입품목

(단위 :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2003	2004	품 목	2003	2004
로알제리	13,182	42,767	옥수수	41,782	782,110
라면	37,073	41,442	대두	322,942	374,317
권련	27,372	36,397	밀	260,469	274,353
배	11,822	15,441	오렌지	124,942	142,855
비스킷	8,466	9,113	쇠고기	886,778	103,233
기타파스타	7,423	8,648	로알제리	85,203	91,233
곡류조제품	6,584	7,414	사료용근채류	91,100	90,078
기타베이커리제품	6,435	6,297	돼지고기	17,644	43,527
국수	5,091	6,103	쌀	7,883	32,768
소주	5,382	5,644	감자	28,843	30,572
젤라틴	3,283	4,212	기타버섯	3,817	27,574
조물제품	2,715	3,878	잎담배	40,733	27,026
알코올성합성조제품	2,814	3,776	스위트콘	26,674	26,572
고추장	3,151	3,756	초코렛	26,177	24,263
기타음료	2,654	3,656	개 사료	27,666	23,719
발효유	3,761	3,170	치즈	17,083	20,610
단일과실조제품	2,541	3,109	포도	17,988	17,997
혼합조미료	2,757	3,091	기타과실	14,425	16,413
기타채소	3,317	2,891	기타유지가공품	10,082	12,935
캔디	2,352	2,748	토마토	13,035	12,91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며, FTA 체결 4년 후에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 달러(10조 4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 낙농품의 대한민국 수출이 9억 불, 과일 및 채소가 7천만 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쌀, 콩, 보리 등 곡물류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로서 시급히 효과적인 협상대책과 국내대책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다. 한-미 FTA 추진방향과 대책

현재 국내의 어려운 농업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업부문이 농업대국인 미국과 농업부문까지 포함하는 일반적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과의 FTA 협상체결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부문의 생산액감소,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하락 이외에 식량자급률 저하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인 쌀, 포도,

쇠고기, 낙농유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장기간 관세철폐유예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취약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여건상 개방화의 가장 취약한 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대외협상 대책과 동시에 사전적인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와 농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 농업에 큰 고통과 도전으로 다가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과 농가소득의 안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발생할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